

전남

나주 현안사업 국·도비 없어 '답보'

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 29억 '발등의 불'
회진성 복원 20년간 고작 900만원 지원

나주시 민선 5기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도비의 원활한 확보가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5기 임 성훈 시장의 취임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과 영산강살리기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 사업이 국·도비지원 지원으로 답보 상태에 있거나 중단돼 중앙

정부를 통한 예산 확보가 사업 성공에 관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죽산보와 승촌보가 견설될 경우 관리수위가 3.5m 가량 높아져 조속히 주변 농경지 침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등 탄소에너지 저감을 위해 현재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내 '빌딩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한데도 오는

2011년 29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전남도지정기념물 제87호인 회진성의 경우 전남도가 20여년전에 복원계획만 세워 놓은 채 현재까지 도비를 불과 900만원 밖에 지원하지 않아 관련 사업자체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나주 복원리 고분전시관을 비롯해 노안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과 나주목 관복원 사업 등 10여개 사업 역시 국·도비 지원이 지역에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나주시는 원활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8일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기병·김옥기 민주당 도의원 및 당소속 시의원이 참여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상훈 시장은 "이번 정책간담회가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도의원 및 시의원들이 뜻을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의미가 있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인기 의원도 "사업이 임박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따내려면 어려움이 있다"며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부처별 사업내용을 수시로 점검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담양교육청 담양중 학생생활관

소방도로 예정지에 건립 '말썽'

담양교육청이 착공과정에서 도시계획 접촉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없이 운동부 학습장을 건립했다가 뒤늦게 불법건축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담양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 담양중 배구부와 하키부 등 운동부 선수를 위한 310㎡ 규모의 학생생활관을 완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소방점검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 위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나 운동부

학생들은 교내 창고건물을 고친 임시

숙소에서 기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불어진 이후 담양교육청은 건물양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등을 담양군에 요구했으나 군은 최근 변경 불가를 통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민들은 "교육청의 불법건축이 발단이 됐지만 이제 와서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군과 교육청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세 얼굴

"소통·화합으로 열린군정 실현"

최희우 담양군 부군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9일 취임한 최희우(55) 담양군 부군수는 "민선 5기 군민과 함께 행복으로 가는 '뉴·담양군 랜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 담양' 건설하겠다"며 "담양군이 전국 지방자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곡성 출신인 최 부군수는 전남

대 행정대학원(정책학 석사)을 졸업 했으며, 전남도 관광문화국 전국체전기획단장·행정지원국 행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임정애(53)씨와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취미는 등산.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200개 표적 동시 탐지 가능

640t급 최신예 경비함 배치

목포해경 취역식

지난 3월 국내 첫 3000t급 하이브리드 경비함에 이어 최신예 경비함이 전남 서남해에 배치됐다.

목포해경은 29일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이정근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장·최재평 목포해경 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 13호'(640t) 취역식을 가졌다.

'태극 13호'는 길이 62m·너비 9m 규모로 5700마력 기관 4대로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설계돼 최고 속력 36노트, 경제속력시 2만550마일을 운행할 수 있으며,

경찰관 17명·전경 9명 등 모두 26명이 탑승한다.

주요 장비로는 최대 96미일까지 200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가능한 근거리용 레이더 2대를 비롯해 ▲최대 수심 8000m까지 수중 탐지 가능한 소나 ▲80m 거리의 화재 선박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포 ▲고속운항이 가능한 10인용 구조정 1대 ▲20mm 벌컨포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야간 열상 감지카메라가 설치돼 주·야간 관측이 가능해 기존 야간수색 및 구조의 어려움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사진

태극 13호는 길이 62m·너비 9m 규모로 5700마력 기관 4대로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설계돼 최고 속력 36노트, 경제속력시 2만550마일을 운행할 수 있으며,

경찰관 17명·전경 9명 등 모두 26명이 탑승한다.

주요 장비로는 최대 96미일까지 200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가능한 근거리용 레이더 2대를 비롯해 ▲최대 수심 8000m까지 수중 탐지 가능한 소나 ▲80m 거리의 화재 선박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포 ▲고속운항이 가능한 10인용 구조정 1대 ▲20mm 벌컨포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야간 열상 감지카메라가 설치돼 주·야간 관측이 가능해 기존 야간수색 및 구조의 어려움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사진

태극 13호는 길이 62m·너비 9m 규모로 5700마력 기관 4대로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설계돼 최고 속력 36노트, 경제속력시 2만550마일을 운행할 수 있으며,

경찰관 17명·전경 9명 등 모두 26명이 탑승한다.

주요 장비로는 최대 96미일까지 200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가능한 근거리용 레이더 2대를 비롯해 ▲최대 수심 8000m까지 수중 탐지 가능한 소나 ▲80m 거리의 화재 선박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포 ▲고속운항이 가능한 10인용 구조정 1대 ▲20mm 벌컨포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야간 열상 감지카메라가 설치돼 주·야간 관측이 가능해 기존 야간수색 및 구조의 어려움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사진

태극 13호는 길이 62m·너비 9m 규모로 5700마력 기관 4대로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설계돼 최고 속력 36노트, 경제속력시 2만550마일을 운행할 수 있으며,

경찰관 17명·전경 9명 등 모두 26명이 탑승한다.

주요 장비로는 최대 96미일까지 200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가능한 근거리용 레이더 2대를 비롯해 ▲최대 수심 8000m까지 수중 탐지 가능한 소나 ▲80m 거리의 화재 선박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포 ▲고속운항이 가능한 10인용 구조정 1대 ▲20mm 벌컨포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야간 열상 감지카메라가 설치돼 주·야간 관측이 가능해 기존 야간수색 및 구조의 어려움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사진

태극 13호는 길이 62m·너비 9m 규모로 5700마력 기관 4대로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설계돼 최고 속력 36노트, 경제속력시 2만550마일을 운행할 수 있으며,

경찰관 17명·전경 9명 등 모두 26명이 탑승한다.

주요 장비로는 최대 96미일까지 200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가능한 근거리용 레이더 2대를 비롯해 ▲최대 수심 8000m까지 수중 탐지 가능한 소나 ▲80m 거리의 화재 선박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포 ▲고속운항이 가능한 10인용 구조정 1대 ▲20mm 벌컨포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야간 열상 감지카메라가 설치돼 주·야간 관측이 가능해 기존 야간수색 및 구조의 어려움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사진

태극 13호는 길이 62m·너비 9m 규모로 5700마력 기관 4대로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설계돼 최고 속력 36노트, 경제속력시 2만550마일을 운행할 수 있으며,

경찰관 17명·전경 9명 등 모두 26명이 탑승한다.

주요 장비로는 최대 96미일까지 200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가능한 근거리용 레이더 2대를 비롯해 ▲최대 수심 8000m까지 수중 탐지 가능한 소나 ▲80m 거리의 화재 선박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포 ▲고속운항이 가능한 10인용 구조정 1대 ▲20mm 벌컨포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야간 열상 감지카메라가 설치돼 주·야간 관측이 가능해 기존 야간수색 및 구조의 어려움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사진

태극 13호는 길이 62m·너비 9m 규모로 5700마력 기관 4대로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설계돼 최고 속력 36노트, 경제속력시 2만550마일을 운행할 수 있으며,

경찰관 17명·전경 9명 등 모두 26명이 탑승한다.

주요 장비로는 최대 96미일까지 200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가능한 근거리용 레이더 2대를 비롯해 ▲최대 수심 8000m까지 수중 탐지 가능한 소나 ▲80m 거리의 화재 선박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포 ▲고속운항이 가능한 10인용 구조정 1대 ▲20mm 벌컨포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야간 열상 감지카메라가 설치돼 주·야간 관측이 가능해 기존 야간수색 및 구조의 어려움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사진

태극 13호는 길이 62m·너비 9m 규모로 5700마력 기관 4대로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설계돼 최고 속력 36노트, 경제속력시 2만550마일을 운행할 수 있으며,

경찰관 17명·전경 9명 등 모두 26명이 탑승한다.

주요 장비로는 최대 96미일까지 200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가능한 근거리용 레이더 2대를 비롯해 ▲최대 수심 8000m까지 수중 탐지 가능한 소나 ▲80m 거리의 화재 선박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포 ▲고속운항이 가능한 10인용 구조정 1대 ▲20mm 벌컨포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야간 열상 감지카메라가 설치돼 주·야간 관측이 가능해 기존 야간수색 및 구조의 어려움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사진

태극 13호는 길이 62m·너비 9m 규모로 5700마력 기관 4대로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설계돼 최고 속력 36노트, 경제속력시 2만550마일을 운행할 수 있으며,

경찰관 17명·전경 9명 등 모두 26명이 탑승한다.

주요 장비로는 최대 96미일까지 200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가능한 근거리용 레이더 2대를 비롯해 ▲최대 수심 8000m까지 수중 탐지 가능한 소나 ▲80m 거리의 화재 선박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포 ▲고속운항이 가능한 10인용 구조정 1대 ▲20mm 벌컨포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야간 열상 감지카메라가 설치돼 주·야간 관측이 가능해 기존 야간수색 및 구조의 어려움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사진

태극 13호는 길이 62m·너비 9m 규모로 5700마력 기관 4대로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설계돼 최고 속력 36노트, 경제속력시 2만550마일을 운행할 수 있으며,

경찰관 17명·전경 9명 등 모두 26명이 탑승한다.

주요 장비로는 최대 96미일까지 200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가능한 근거리용 레이더 2대를 비롯해 ▲최대 수심 8000m까지 수중 탐지 가능한 소나 ▲80m 거리의 화재 선박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포 ▲고속운항이 가능한 10인용 구조정 1대 ▲20mm 벌컨포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야간 열상 감지카메라가 설치돼 주·야간 관측이 가능해 기존 야간수색 및